

■ 특집논문 1-1

올리버 알 에비슨(1860~1956)의 생애

박 형 우

연세대 동은의학박물관

숲은 너무 커서 그 존재를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숲의 존재를 잊고 나무 몇 그루에만 관심을 두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올리버 알 에비슨이 바로 그런 경우가 아닐까 싶다.

의료 및 교육 선교사였던 에비슨은 조선이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던 1893년 내한하여 42년 동안 활동하면서 한국의 서양의학과 고등교육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 에비슨은 목회자가 아니었지만 의료와 교육을 통해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어느 누구 못지않게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1. 에비슨이 선교사로 내한하기까지

에비슨은 1860년 6월 30일 영국 요크셔의 재거 그린(Jagger Green)이라 부르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방직공장의 마감부 책임자였다. 마침 불어 닥친 산업혁명의 여파로 노동자들이 해고되자 다른 사람들처럼 에비슨의 가족은 신대륙으로 이민을 떠났다. 에비슨이 6살이 되던 1866년이였다. 에비슨 가족은 미국을 거쳐 캐나다 온타리오의 웨스턴(지금은 토론토 시의 일부)에 정착했다.

에비슨의 부친은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하고 독학을 했기에 자식들이 좋은 교육을 받기를 바랐다. 아버지의 직장을 따라 온타리오 동부의 몇 도시에 살면서 에비슨은 초등 교육을 받았다. 1871년 알몬트에 살고 있던 에비슨은 아버지를 줄라 다른 애들처럼 모직공장에 취직해 2년 동안 일을 했다. 1872년에는 같은 또래의 아이들에게 야학을 가르쳤다. 하지만 모직공장의 노동자가 살아가는 모습에 자극을 받아 궁핍하지 않게 살기 위해 교육을 받겠다고 결심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다시 입학했고 알몬트고등학교에 진학했다. 고등학교 교사 중 한 분

이 전도사로서 인도로 가기로 결정한 것은 에비슨의 시야를 크게 넓혀 주었다. 또한 역사적 사건들을 정치적으로 자유당의 관점에서 가르친 교장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그를 통해 역사의 사회적 의미를 인식하게 됐던 것이다.

1876년 알몬트고등학교를 졸업한 에비슨은 교사 자격증을 받기 위해 퍼드의 사범학교에 입학했다. 1877년 가을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스미스 폴스의 허튼초등학교에서 3년 동안 교사 생활을 했다. 1877년 10월 31일 취업을 위해 스미스 폴스를 방문한 에비슨은 할로윈 파티에서 후에 반려자가 된 제니를 처음 만났다. 1879년에는 높은 급의 교사 자격증을 받기 위해 오타와의 고등사범학교를 졸업했다.

하지만 에비슨은 교사를 평생의 직업으로 갖지 않기로 하고 자신이 흥미를 가졌던 화학 분야의 적성을 살리기 위해 약사가 되기로 했다. 약사가 되기로 결심한 에비슨은 1880년 후반 스미스 폴스의 약방에 들어가 도제 생활을 했다. 그는 열심히 공부했으며 약방을 소유하고 있는 의사가 사용하는 많은 약품들을 제조하는 등 3년 동안 도제 생활을 했다. 약사 시험을 보기 위해 에비슨은 토론토의 온타리오 약학교에 입학하여 1884년 6월 4개의 금메달을 받으며 50명 중 1등으로 졸업했다. 이전 약방의 주인이 동업하자고 요청했으나 모교의 교수직을 수락하고 약물학과 식물학을 강의했다. 이후 상당한 시간이 남아 돈을 더 벌기 위해 잘 나가는 약국에 취직하려 생각했지만 약학교 교장이 의과대학에 진학할 것을 강하게 권했다.

이에 1884년 가을 약학교에서의 경력을 1년 인정해주기로 한 빅토리아대학교(졸업할 때는 토론토대학교) 의과대학에 편입했다. 첫 해가 끝나자 반에서 1등이 되어 장학금을 받았다. 둘째 해가 끝나서도 마찬가지로였다. 하지만 의학 공부와 약학교에서의 교수 생활로 건강이 약해져 세 번째 해에는 더 열심히 공부하지 않기로 했고 3등이 됐으나 건강은 상당히 좋아졌으며 결국 1887년 6월 졸업했다. 의과대학에서 두 번째 해인 1885년 7월 28일 제니 반스와 결혼했다.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7월 6일 모교의 강사로 임명돼 약리학과 치료학을 강의했다. 그는 약학교의 교수직을 유지하며 이 직책을 수락함으로써 주당 13시간의 강의를 담당했다. 여름철에는 미숙한 의사들에게 호감이 가도록 보이고 맛이 나게 하는 처방전을 작성하는 법, 소위 ‘세련된 처방’이라고 부르는 특별 강의를 실시했다.

약학교는 5년 동안 강의한 후 개업에 전념하기 위해 교수직을 사임했다. 의과대학에서는 교수 시험 위원에 임명됐고, 토론토 시장의 주치의로 활동했다. 당시 에비슨은 의과대학생들 사이에 존스 홉킨스대학교의 토머스 컬렌(Thomas Cullen)과 루엘린 에프 바커(Llewellyn F. Barker), 그리고 토론토에서 가장 유명한 외과의사이며 온타리오주의 주지사를 역임했던 허버트 브루스같은 유명한 의사들 중 한 명으로 이름이 올랐다.

에비슨은 대학 교수, 개업의 이외에도 기독교와 관련돼 해외 선교 모임, 개척 교회 성경 지도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런 활동의 일환으로 에비슨은 1892년 9월 하순 언더우드를 초청했다. 이때 언더우드가 에비슨에게 해외선교사로 나갈 생각이 없는지 물어보았다. 이것이 그에게 자극을 주었다. 그래서 토론토대학교 의과대학의 교수로 6년 동안 재직 후 5년 동안 재임용된 상태였던 에비슨은 교수직을 사임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캐나다 감리회를 다녔지만 미국 장로회 해외선교부의 의료 선교사가 되기로 하고 1893년 2월 6일 선교사로 임명됐다.

에비슨은 1893년 6월 아내와 세 아이들을 데리고 밴쿠버를 떠났고, 7월 16일 부산에 상륙했다. 상륙한지 1주일 후에 셋째 아들인 더글러스가 태어났고, 8월에 서울에 도착했다.

2. 에비슨과 연세대학교

올해로 창립 125주년을 맞는 연세대학교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 에비슨의 역할이 잘 드러난다. 연세대학교는 1957년 1월 세브란스의과대학과 연희대학교가 합동할 때 두 학교의 첫 자리를 따서 지은 것이다. 이때 합동한 두 학교는 각각 호러스 엔 알렌(Horace N. Allen)과 호러스 지 언더우드(Horace G. Underwood)에 의해 시작됐다.

지금의 세브란스는 1885년 4월 개원한 한국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제중원에서 시작됐다. 1884년 12월 4일 일어난 갑신정변의 와중에서 자상을 입은 민비의 친척 민영익을 알렌이 치료한 것이 계기가 됐다. 당초 선교를 위해 내한했던 첫 선교사 알렌으로서는 크나큰 기회였다. 그는 병원 설립안을 조선 정부에 제출했고 고종의 후원으로 설립된 제중원의 책임을 맡았다. 병원 설립의 목적에는 의학생 교육이 명시돼 있었다. 하지만 진료에 바빴고 학생들의 모집, 교육이 이루어질 공간 확보, 최소한의 학습 교재 준비 등 모든 것이 미비했던 관계로 당장 의학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격적인 의학교육은 존 더블유 헤론(John W. Heron)의 부임과 언더우드의 도움으로 시작될 수 있었다. 그리하여 1886년 3월 29일 한국 최초의 서양 의학교육 기관인 제중원의학교가 개교했다. 의학교에서 언더우드는 알렌과 헤론을 도와 물리, 화학 등 지금의 예과 과정에 해당하는 과목을 가르쳤다. 당시의 의학교육은 의사 배출이라는 뚜렷한 열매는 맺지 못했다.

그런데 1887년 9월 알렌이 선교사직을 사임하고 주미 한국공사관의 개설을 돕기 위해 귀국했고, 1890년 7월 헤론이 이질로 사망하자 제중원의 운영에 큰 문제가 발생했다. 더구나 1891년 4월 헤론의 후임으로 부임한 빈튼이 조선 정부와 갈등을 빚었다. 그 갈등은 제

중원의 운명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었다. 이후 2년 동안 제중원은 존폐의 기로에 서 있었다.

그 동안 제중원을 훌륭한 보호막으로 삼아 선교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던 언더우드는 제중원의 여의사 릴리어스 에스 호튼(Lillias S. Horton)과 결혼했다. 1892년 안식년으로 미국에 체류하던 그는 토론토대학교 의학부의 교수로 선교 모임을 이끌고 있던 에비슨의 초청을 받았다. 9월 말 언더우드는 토론토를 방문하여 교수와 학생들에게 한국에서의 선교 경험을 알려 주었다. 에비슨에게 해외 선교에 직접 나서지 않겠느냐는 질문도 던졌다. 이것이 촉매가 되어 에비슨은 1893년 2월 6일부로 미국 북장로회 해외 선교부로부터 한국의 의료 선교사로 임명을 받았고, 7월 중순 내한했다.

에비슨은 부임 다음 해인 1894년 제중원의 운영을 두고 조선 정부와 6개월인 협상을 벌인 끝에 9월말 제중원을 선교부로 이관 받았다. 이로써 제중원은 온전한 사립 선교 기관으로 재편됐다.

이후 언더우드와 에비슨은 긴밀하게 서로 협조하며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1900년 세브란스가 병원 건립을 위해 기부한 기금을 두고 평양의 선교사들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언더우드를 포함한 서울지부의 선교사들이 적극 에비슨을 도왔다. 결국 에비슨이 원하던 대로 1904년 9월 제중원을 새로 짓고, 기증자의 이름을 따서 세브란스병원이라 이름을 붙였다. 제중원의학교는 세브란스병원의학교로 불리게 됐다.

1908년 6월 에비슨에 의해 한국 최초의 면허 의사인 첫 졸업생 7명이 배출됐다. 세브란스병원의학교는 이후 세브란스연합의학교, 세브란스연합의학 전문학교 등으로 점차 발전하면서 한국 의학교육의 중심이 됐다.

한편 1906년 언더우드는 서울에 고등교육 기관을 설립하고 싶었다. 하지만 많은 선교사들은 이미 평양의 숭실학교에 대학부가 설치돼 있다는 이유로 언더우드의 이런 계획에 반대했다. 이번에는 에비슨을 포함한 서울지부의 선교사들이 적극 언더우드를 도왔다. 언더우드의 꿈은 1915년 3월 경신학교 대학부를 개교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언더우드는 교장에, 에비슨은 부교장에 임명됐다. 안타깝게도 건강이 나빠져 1916년 4월 미국으로 돌아간 언더우드는 10월 12일 57세의 나이로 타계했다. 언더우드가 타계하자 부교장 에비슨이 교장으로 취임했다.

경신학교 대학부의 교장으로 취임한 에비슨이 가장 먼저 나선 것은 전문학교 승격이었다. 그리하여 1917년 4월 조선 총독부로부터 재단법인과 사립 연희전문학교의 설립을 인가 받았다. 이때부터 경신학교 대학부는 연희전문학교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했다. 다음으로 넓은 교지와 교사 확보가 문제였다. 경비는 언더우드의 형 존이 기부했다. 에비슨은 1917년 9월 당시 경기도 고양군 연희면에 송림이 울창한 토지 29만 320평을 교지로 매입했다. 이곳이 현재 연세대학교가 위치해 있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번지이다.

이와 같이 에비슨은 18년 동안 두 학교의 교장을 역임함으로써 한국의 서양의학은 물론 고등교육의 토대를 마련했다. 창립자가 모두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였고, 더구나 에비슨이 두 학교의 교장을 겸임하고 있으니 서로 합동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3.1 운동이 끝난 후 에비슨은 종합대학교를 설치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세브란스와 연희의 확장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하지만 일제가 가로 막고 나섰다. 허가를 내주기는커녕 1924년 경성제국대학을 설립해 버렸다.

1926년이 되자 양교 합동에 관한 의견이 피력됐고 1929년 6월 합동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가 처음 시작됐다. 이후 몇 번에 걸쳐 합동에 관한 여러 안들이 제시됐지만 일제의 간섭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

해방 이후 선교본부의 주도로 합동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됐다. 1949년 5월 우선 신입 예과생들을 연희대학교에서 모집하기로 했던 것은 합동의 첫 단추를 채운 것이었다. 한민족에 큰 슬픔을 안겨 준 1950년의 한국전쟁은 양교의 합동을 촉진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전후 복구 과정 중에 양교는 다시 한 번 합동을 결정했고, 결국 세브란스의과대학과 연희대학교는 1957년 1월 연세대학교로 재탄생했다. 1956년 8월 에비슨이 타계한 직후였다. 안타깝게도 타계 몇 년 전부터 병석에 누워 있었던 에비슨은 연세대학교의 탄생을 몰랐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역사를 살펴보면 알렌과 언더우드로 대표되는 선배 선교사들이 씨를 뿌렸다면 에비슨은 이를 잘 관리하여 지금의 연세대학교라는 구체적인 열매를 맺게 한 장본인이었다. 에비슨이 없었다면 한국의 의학교육과 고등교육의 현재 모습은 크게 달라졌을 것임에 틀림없다.

3. 에비슨의 배경

그렇다면 에비슨이 의학교육과 고등교육을 병행하며 한국에 기여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자. 첫째, 타고난 성품을 보면 그는 항상 낙천적으로 살았으며, 일을 조급하게 처리하지 않았다. 좀처럼 화를 내는 일도 없었다. 어떤 제자는 그가 비록 외국인이었지만 ‘마치 할아버지처럼 품에 안기고 싶은 사람’이었다고 증언한다.

하지만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일단 목표가 정해지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 성실하고 정직하게 추진했다. 그는 스스로 판단하여 인생을 꾸려나갔다. 어려서 모직 공장 노동자 일을 했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교사로, 이어 약사로, 그리고 의사와 교수로서 자신의 장래를 확고하게 다졌다. 하지만 모든 부와 명예를 떨쳐 버리고 의료 선교사로 내한했다. 그의 96

년 일생 중 가장 오래 살았던 곳이 바로 한국이었다.

둘째, 종교에 대한 포용력이다. 그는 자신이 속한 교파의 신조를 고집하며 경직되지 않았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여러 교파에 대해 보인 포용력은 평생 그에게 영향을 미쳤다. 선교사로 나서면서 닦았던 가장 컸던 문제는 자신이 지원했던 교파가 자신이 다니던 감리회가 아닌 미국 북장로회였던 점이였다. 하지만 에비슨은 교파에 연연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사업’을 강조하던 해외 선교부 엘린우드 총무의 감화를 받아 자신의 적을 감리교회에서 장로교회로 바꾸었다. 이후 에비슨은 여러 교파와 연합하여 선교 사업을 원만하게 이끌었다. 그는 진정 교파를 초월한 교회연합운동의 선구자였다.

명칭에서 ‘연합(Union)’이란 말은 내가 원래 의도했던 것이다. 세브란스씨가 진정 원했듯이 여러 교파가 운영 자금, 의사와 간호사를 제공하는데 협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선교에 대한 생각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십자가의 정신을 평생 품었던 에비슨은 이웃 사랑(愛人)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敬天)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선교의 목적이이라며 이웃 사랑(그에게는 의료)의 의미를 폄하하던 일부 선교사들과는 달랐다. 이에 대해 에비슨은 다음과 같이 적었다.

나는 아직도 상당수의 선교사들이 많은 정신적인 질환을 악령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증거로 여기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

일부 선교사는 한국에서 전염병의 빈도가 감소한 것이 분명 기독교의 전파 그 자체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어떤 사건에 대해 예수가 무엇을 했고 가르침을 주었는지에 대한 일부 내용의 정확성에 대해 냉소적인 입장이다. 하지만 예수가 주었던 가르침과 본보기의 가치를 비방하는 가장 마지막 사람들 중의 한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의사이자 과학자다. 수천 명의 연구자와 의사들에 의해 진실로 밝혀진 진리를 부득이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다.

넷째, 한국민에 대한 사랑이다. 에비슨이 내한하여 목격했던 한국사회는 안타까움 그 자체였다. 하지만 40여 년을 매일같이 왕에서부터 가장 천한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그 나라의 모든 계층의 사람들과 만나보니 여러 요인으로 정신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쇠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리하여 그는 젊은이들에게 지식의 힘을 키워주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하여 두 학교를 통해 의학과 과학을 가르쳤다. 그 결과 그들이 학자, 의사, 외과의사, 목사, 법률가 등으로 성장, 발전하는 것을 목격했고 ‘모든 종족에 있어 타고난 평균 지력은

동일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는 미래에 열매가 맺어질 것으로 확신하여 항상 한국민들을 격려하며 교육에 매진했다. ‘치외법권’이라는 특권을 이용해 일제에 대항할 힘조차 없었던 한국인이 힘을 되찾을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했다.

다섯째, 교육에 대한 생각이다. 그는 의료 선교사로서 한국에서 어떻게 활동해야 하는지 심사숙고했다. 적은 수의 외국 의사들로 위생 상태를 개선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결국은 충분한 수의 한국인 젊은이를 의사로 교육시키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교육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 나면 선교사들은 결국 출구라고 표시된 문을 통해 퇴장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모든 선교사는 그들이 의사이건, 간호사이건, 선생이건, 목사이건 간에 언젠가는 ‘출구’라고 표시된 문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을 예상하고 있어야 한다.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에비슨이 기울였던 노력은 결국 서양의학의 토착화였다. 그는 김필순, 홍석후, 홍종은 등의 도움을 받아 전 과목에 걸쳐 한국어로 된 의학 교과서를 편찬했다. 그리고 알렌, 헤론 시대와 달리 정규 졸업생을 배출함으로써 이들이 한국 최초의 의사 면허인 의술개업 인허장을 취득하게 했다. 즉 의학교육이 교육 자체로서의 의미를 넘어서 사회적 공인 과정을 밟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다. 더 나아가 이들은 모교에 남아 후학을 양성함으로써 서양의학이 한국에 뿌리를 내려 자생할 수 있는 토대를 쌓았다.

에비슨은 연희전문학교를 기독교 정신에 기반을 두고 심오한 학문을 연구하며 고도의 기술을 연마해 국가와 민족의 지도적 인물을 양성하는 것에 목표를 두었다. 이러한 정신에 따라 유억겸, 백낙준, 이춘호, 이원철, 정인보, 이순탁, 백남운, 최현배, 이관용, 그리고 조병옥 등 당시 최고의 교육을 받은 한국인 교육자들이 연희전문학교의 교수로 초빙됐다. 그들이 해방 후 대한민국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음은 물론이다.

에비슨은 한국민을 지배하려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전해 줌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데’ 서로 협력하는 동등한 관계를 이룩하려 했다.

4. 에비슨의 은퇴

1934년 에비슨은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의 교장에서 물러나 한국인에게 교장 자리를 물려주었다. 때가 되자 미련 없이 출구를 통해 나갔던 것이다. 그리고 1935년 12월 한국을 떠

났다. 당시 보도에 의하면 에비슨은 ‘한국에 정착하기 전에 고국의 친지들에게 안부 인사를 전하러’ 한국을 떠난 것이었다. 하지만 귀국한지 얼마 되지 않아 사랑하는 아내 제니가 세상을 떠났고, 국제 정세가 험악해지면서 그는 돌아오지 못했다. 그는 회고록의 서문에서 이렇게 밝혔다.

나는 한국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아마도 나는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생전의 내 아내의 마음처럼 나도 한국인과 함께 할 것이다.

1936년 귀국한 에비슨은 20년이 지난 1956년 타계했다. 벌써 50년이란 세월이 훌쩍 넘었다. 에비슨의 분신인 연세의료원에는 그의 동상이 서 있고, 그를 기념하는 행사가 매년 개최된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에 대한 기억이 점점 흐려지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다.

연세대학교가 창립 125주년을 맞는 올해는 에비슨이 탄생한 지 15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뒤늦게나마 에비슨 선생의 회고록이 제대로 번역이 돼 출판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이 회고록에 담긴 에비슨의 고귀한 정신이 연세대학교와 한국 사회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한다.

핵심어: 에비슨, 한국, 연세대학교, 연합

Abstract

The Life of Oliver R. Avison (1860~1956)

PARK Hyoung-woo

Yonsei University

In June 30th, 1860, Avison was born in small town called Jagger Green in Yorkshire, the England. He graduated from the Ontario College of Pharmacists in Toronto on June 4th, 1884, and accepted a job as professor at his school and taught a course on a pharmacology and botany. In autumn of that year, he was admitted to the Victoria Medial School. After graduating medical school, he taught pharmacology and therapeutics, while working as a physician in private practice. In addition, he had diverse activities related to Christianity. In September 1892, he met Horace G. Underwood. Being influenced by Underwood, he decided to become a missionary and resigned his teaching position. As a medical and educational missionary, Avison went to Korea in 1893, when Korea was struggling to survive among the big powers o f the time. He worked in Korea for 42 years and contributed to the improvement of higher education and Western medicine in Korea. He led mission work through a union of several denominations. He was a pioneer of the ecumenical movement. Moreover, he successfully carried out the settling of Western medicine in Korea. Avison was not a minister, but he performed mission work more successfully than anyone else through medicine and education.

Key words: Avison, Korea, Yonsei University, Union